

西洋교양교육의 모델

브리태니카의 위대한 대화 - 「그레이트 북스」 목록

李重漢

서울신문 논설위원 · 출판평론가

「그레이트 북스」는
**총 54권에 수록된 74저작자의
 443개 저작물을 10년에 나누어
 읽는 순서까지도 정해놓고 있다.**
**어느 한 저작자의 한 권을
 계속해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도 여러 해에 나누어
 연차적으로 읽기를 권유한다.**
**서양의 고전교양의 틀에
 우리가 꼭 매달릴 의무는 없다.**
**그러나 서양의 고전을 읽는 일은
 우리의 지양일 수 있다.**

서양의 전통이 만들어낸 책들

“얼마전까지도 서양사람들은, 교육은 위대한 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명한 일로 생각했다. 서양의 전통을 만들어 온 좋은 책들을 읽지 않은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되었다”

엔사이클로피디어 브리태니카사가 간행한 「그레이트 북스」(위대한 책들)全集 54권의 첫번째권인 전집의 入門書 「위대한 대화」에서 로버트 허친스는 그의 서문을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나 오늘날엔 이러한 교양교육이 서양 스스로가 제시한 ‘실용적이며 생산적인 학문’에 의해 훼손되고 약화되었다고 단정한다. 그리고 경향이 뛰어나게 이루어놓은 높은 기술의 산물들을 서로 나누어 갖겠다고 야단들이라고 지적한다. 그것도 물론 성공의 장관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러한 소란들이 일으키는 새로운 혼돈의 위기는 또한 누가 어떻게 균형감을 가지고 정돈할 것인가. 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야말로 지금 잊고 지내게 된 서양전통의 교양교육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 허친스의 시각이다.

그리고 이 시각은 물론 허친스의 것만은 아니다. 「그레이트 북스」의 계획은 이러한 정신에 뜻을 같이하는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장구한 편집회의와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선정해 놓은 현대지성의 종합적 의지로서의 작품이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은 고등학교과정의 학생들을 첫 그룹으로 하고, 성인교육을 포함하는 ‘만인을 위한 교양’의 독자이기를 지향했다.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라는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

“여러분이 교양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리는 없다. 여러분이 만일 90세 이하의 미국인이라면 여러분은 교육제도 안에서 다만 교양교육의 초기의 가장 희미한 것만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의 교육과정에서, 대학까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읽었던 모든 위대한 책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스스로 물어보라... 내기를 걸어도 좋지만 무엇인가 읽었다 하더

라도, 아마도 그것은 비체계적으로 아주 적은 일부만을 조각조각으로 읽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읽어서는 바람직한 교양의 형성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논증한다. 따라서 「그레이트 북스」는 이 54권에 들어 있는 74저작자의 443개 저작물을 10년에 나누어 읽는 순서까지도 마련한다. 어느 한 저작자의 한 권을 계속해 읽는 것이 아니라, 한권의 책도 여러 해에 나누어 연차적으로 읽기를 권유한다. 물론 그 여러 권의 나누어진 단계들이 모여서 보다 종합적인 시야의 균형과 이해도의 증진을 체계화하지는 목적 때문이다.

그 읽기 체계화의 예를 10년차의 읽기순서 목록을 통해서 일별해 보자.

[10년째 해]

1. 소포클레스 : 아이아스, 엘렉트라
「그레이트북스」 제5권 143~169p
2. 플라톤 : 티마이우스
제7권 442-477p
3. 아리스토텔레스 : 동물부분론(책 I, 1장~책 II, 1장), 동물생식론(책 I, I 17~18, 20~23장)
제9권 161-171, 255-256, 261-266, 268-271p
4. 루크레티우스 : 사물의 본질론(책 V-IV)
제12권 61-97p
5. 버질 : 전원시, 농경시
제13권 3-99p
6. 아퀴나스 : 신학대전(제1부 문제 65-74)
제19권 339-377p
7. 아퀴나스 : 신학대전(제1부 문제 90-102)
제19권 480-527p
8. 초서 : 캔터베리아 이야기(서언, 기사 이야기, 밀러의 서언과 이야기, 리이브의 서언과 이야기, 베스부인의 서언과 이야기, 탁발수도사의 서언과 이야기, 노환자의 서언과 이야기, 먼리부 판매원의 서언과 이야기)
제22권 159-232, 256-295, 372-382p
9. 셰익스피어 : 리처드2세의 비극, 헨리4세 제1부, 헨리4세 제2부, 헨리5세의 생애
제26권 320-351, 434-502, 532-567p
10. 하버 : 동물생식론(서론-연습문제 62)

- 제28권 331-470p
11. 셰르반테스 : 동키호테(제 II 부)
제29권 203-429p
12. 칸트 : 판단력 비판(목적론적 판단력 비판) 제42권 550-613p
13. 보즈웰 : 새뮤얼 존슨의 생애
제44권 354-364, 373-384, 391-407, 498-515, 584-587p
14. 피테 : 파우스트(제 II 부)
제47권 115-294p
15. 다윈 : 인간의 계보(제 I 부, III부 21장)
제49권 255-363, 590-597p
16. 마르크스 : 자본론(제 VII-VIII부)
제50권 279-383p
17. 제임스 : 심리학원리(제 I, V-VII장)
제53권 1-7, 84-129p
18. 프로이트 : 정신분석학문
제54권 449-638p

이 전집은 1952년에 간행됐다. 그러나 30년 이상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도 그 목록에 대한 권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은 교양교육이 필요한가? 이 책들을 읽지 않는 것은 비애국적이라고 우리는 말 하겠다”고 써제겼던 편집자들의 자만은 누구에게서도 아직은 자만으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약 반수가 국내에 번역 소개돼

우리 역시 교육은 위대한 책들을 읽음으로 써 이루어진다고 믿어온 나라이다. 四書三經을 읽지 않고 治國이 아니라 齊家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 교양교육은 흔적조차 사라졌다. 조각난 단어들, 그것도 대입고사에 출제되는 단어들 속에서만 지식은 주입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類의 목록들이 공급측면에서 인정할 만한 가치를 가졌다 하더라도 실질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 그결과 우리의 독서市場에서는 최소한의 공급과 수요의 만남으로 적은 부분의 번역들만이 이루어졌다.

목록상 점검으로 이 전집의 74저작자 중 35저작자만이 우리에게 소개돼 있다. 저작자로만 보아서는 47%의 수용을 보인다.

그러나 저적물로는 284개 저작권수 중 84개 저작품만 소개가 되었다. 30%에 미달하는

수치이다.(앞의 443개 작품의 표기는 글 하나씩을 전부 개체로 센 것이다. 플루타르크의 경우 63개 작품으로, 「몽테뉴 수상록」을 105개 작품으로 본 것이다.)

이것도 완역이 아닌 것까지 포함해서이다. 그리고 동일저작자에서도 이 목록에 들어가는 저작물이 아닌 목록이 번역돼 있는 경우까지 셈해서이다.

선택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다를 수 있지만, 예컨대 아퀴나스나 베이컨이나 윌리엄 제임스들에 있어 「그레이트 북스」가 공중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한 책들이 우리에게서는 번역되지 않았다. 이것은 곧 이들 사상가들의 책에 있어 그나마 우리의 번역이 공중적 관심이 아니라 학문적 관심에서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조너던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같은 경우는 아동물로의 요약본만이 나와 있다.

전혀 소개되지 않은 大作들도 물론 많다. 목록을 보면 그 점을 가장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서양의 고전교양교육의 틀에 우리가 꼭 매달릴 의무는 없다. 그러나 서양의 고전을 읽는다는 일은 우리의 자양일 수 있으며, 또한 수확이여야 할 요구가 있다.

「그레이트 북스」전 54권 목록

(註)

- 1) ○안의 숫자는 54권 전집의 권수번호. 但 ①권은 로버트 허친스가 쓴 교양 교육론 「위대한 대화」-이 전집의 기획 및 지향의 기반을 설명한 입문서. ② ③은 「그레이트 북스」종합사상사전(문헌, 용어집 포함)
- 2) ○안 숫자 앞에 있는 부호.
 - 는 한국어번역본이 있으며, 현재 쉽게 구할 수 있는 책.
 - 목록의 일부가 번역돼 있고, 번역된 것은 구할 수 있는 책.
 - 번역돼 있으나 현재 구하기 어려운 책.
- 3) 번역돼 있다고 해서 꼭 그 책이 충실한 번역본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번역상태를 구분하는 표시를 따로 하는 것은 기피했다. 그러나 이 일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 4) 총 저작자 73명, 저작품 284. 개별저작자의 저작품이 5편 미만일 때는 전부 제명을 수록했고 5편이 넘을 때는 <...등 ○작품>이라고 표기했다. 이때 「작품」은 개별 저작물을 뜻한다. 몇군데 <...등 ○항목>이라고 쓴 것은 개별저작물이 아니라 한 저작물內에 있는 개별글의 篇數를 뜻한다. 물론 이 글들도 글 자체로서는 독립된 것들이다.

- ④ 호머(Homer) 「일리아드」 「오딧세이」
- ⑤ 아이킬루스(Aeschylus BC 약 525-456) 「구원을 바라는 여인들」 「무인 프로메테우스」 「아가멤논」 등 7작품
- 소포클레스(Sophocles BC 약 495-406) 「외디푸스왕」 「안티고네」 「트라키스의 여인들」 등 7작품
- 유리피데스(Euripides BC 약 480-406) 「레수스」 「바쿠스의 여신도들」 「미친 헤라클레스」 등 18작품
-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 BC 약 445-380) 「아카르니아의 사람들」 「평화」 「여인만의 축제」 등 11작품
- ⑥ 헤로도투스(Herodotus BC 약 484-425) 「역사」
- 투키디데스(Thucydides BC 약 460-400)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 ⑦ 플라톤(Plato BC 약 428-384) 「향연」 「변명」 「공화국」 등 25작품
- ⑧⑨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322) 「형이상학」 「시학」 「니코마쿠스 윤리학」 등 29작품
- ⑩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BC 약 400) 「골절론」 「고대의술에 대하여」 「수술론」 등 19작품
- 갈렌(Galen 약 130-200) 「자연의 기능에 대하여」
- ⑪ 유클리드(Euclid BC 약 300) 「기하학 원론」
- 아르키메데스(Archimedes BC

- 약 287-212) 「공과 원통에 대하여」 「원의 측정법」 「평면균형론」 등 10작품
- 아폴로니우스(Apollonius BC 약 262-200) 「원추론」
- 니코마쿠스(Nicomachus AD 약 100) 「산수입문」
- ⑫ 루크레티우스(Lucretius BC 약 98-55)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 에픽테투스(Epictetus AD 약 60-138) 「어록」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121-180) 「명상록」
- ⑬ 버질(Virgil BC 70-19) 「전원시」 「농경사」 「아이네이드」
- ⑭ 플루타르크(Plutarch 약 46-120) 「그리스와 로마 귀족들의 전기」 (63항목)
- ⑮ 피 코넬리우스 타키투스(P. Cornelius Tacitus 약 55-117) 「연대기」 「역사」
- ⑯ 프톨레미(Ptolemy 약 100-178) 「천문학대전」
-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 1473-1543) 「천체 회전론」
- 요하네스케플러(Johannes Kepler 1571-1630)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 요약」 「우주의 조화」
- ⑰ 플로티누스(Plotinus 205-270) 「여섯 엔네아드」
- ⑱ 성 오거스틴(Saint Augustine 354-430) 「참회록」 「신의 도시」 「기독교 교리론」
- ⑲⑳ 성 토마스 아퀴나스 (Saint Thomas Aquinas 약 1225-1274) 「신학대전」 중 19항목
- ㉑ 단테 알리기에리(Dante Alighieri 약 1265-1321) 「신곡」
- ㉒ 지오프리 초서(Geoffrey Chaucer 1265-1321) 「트로일루스와 크레시다」 「캔터베리 이야기들」
- ㉓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1469-1527) 「군주론」
- 토마스홉스(Thomas Hobbes 1588-1679) 「레비야탄(교회 또는 일반

- 국가의 요소, 형식 및 권력)」
- ㉔ 프랑소아 라블레(Francois Rabelais 약 1495-1553) 「가르간투아와 뻘따그루엘」
- ㉕ 몽테뉴(Michel Eyquem de Montaigne 1533-1592) 「수상록」 중 105항목
- ㉖ ㉗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 「헨리 6세」 「리처드 3세」 「햄릿」 등 37작품
- ㉘ 윌리엄 길버트(William Gilbert 1540-1603) 「좌석에 관하여」
- 갈릴레오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 「새로운 두 과학에 관하여」
- 윌리엄 하비(William Harvey 1578-1657) 「동물의 심장과 피의 운동에 관하여」 「동물의 생식에 관하여」
- ㉙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 1547-1616) 「동키호테 드 라 만차의 생애」
- ㉚ 프랜시스 베이컨(Sir Francis Bacon 1561-1626) 「학문의 발전」 「새로운 논법」 「새로운 에틀랜티스」
- ㉛ 르네 데카르트(Rene Decartes 1596-1650)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 「제1철학에 관한 고찰」 「기하학」 「방법론 서설」 「명상과 응답에 대한 반론」
- 베네딕트 드 스피노자(Benedict de spinoza 1632-1677) 「윤리학」
- ㉜ 존 밀튼(John Milton 1608-1674) 「영국 단시집」 「투사 샘손」 「실락원」 「아레오파기타카」
- ㉝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 「팡세」 「산술 삼각론」 「확률에 관한 퍼어멜과의 교신」 등 9작품
- ㉞ 아이작 뉴턴(Sir Isaac Newton 1642-1727)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광학」
- 하이겐스(Christiaan Huygens 1629-1695) 「빛에 관한 논고」
- ㉟ 존 로크(Jhon Locke 1632-1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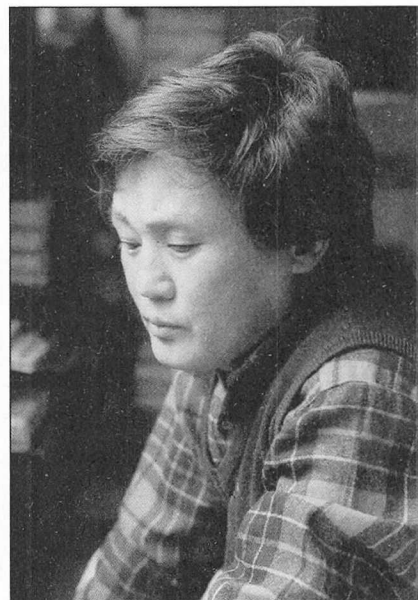
현대사 백년의 피어린 항쟁기록

장편 「風笛」과 「백년싸움」

金聖東

소설가

타율적으로 중단당한 「風笛」은
해방에서 6·25 발발까지를
역사적 공간으로 하는 작품이며,
「백년싸움」은 일종의 역사 교양서로서
우리나라 현대사 백년을
정리해보려는 것이다.



“꽃도 피지 않고 새도 울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는 이 캄캄한 겨울에 문학은
무엇이고 문학인은 또 무엇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丙寅의 새 아침을 맞아 저 백이십년 전의
洋擾를 떠올리며 그 양요로부터 비롯되어
오늘에 이르러 더욱 심화·확대되고 있는
온갖 문제들을 곱씹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설을 쓸 작정입니다.

타율적으로 중단되었던 두 편의 장편을
발표와 관계없이 마무리짓고,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만 새겨두고 있던 몇 편의
중·단편을 꽃 피고 새 울고 또 소설한
바람이 불어서 행복할 새 세상의 그날을
위하여.”

이상은 1986년 신년호의 어떤 문예잡지에
썼던 글이다. 그러나 단편 하나를 쓰는 데
그쳤고, 1987년에는 단편 두 편이었다. 물론
5년만에 세번째의 창작집과 두번째의
산문집을 내었고, 잡지가 폐간되는 바람에
중단하기는 했지만 장편소설 하나를
연재하기도 했으므로 그냥 내 것만은
아니지만, 나의 소설생산력은
이처럼 빈핍한 것이었다.

소설을 쓰는 것으로 업을 삼은 만 12년의
세월 동안 모두 6권의 책을 썼다. 장편소설
1권과 창작집 3권, 그리고 산문집 2권.
이때문에 1권꼴을 펴낸 셈이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작
소리를 듣는 것은 나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알고, 분발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써야 할 책이 4권이다.
타율적으로 중단당한 장편소설인 「風笛」과
「늘 떠나는 아이」와 새로 시작할 「집」

그리고 「백년싸움」이 그것들이다. 해방에서
6·25 발발까지를 역사적 공간으로 할
「風笛」은 2천장 가량을 더 써야 하고,
유·소년시절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성장소설이 될 「늘 떠나는 아이」는 7, 8백장
가량을 더 써야 되며, 한 평범한 여성의
관점과 시각에서 씌고 병든 시대에 맞서
가정을 꾸려내는 이야기가 될 「집」은 이제
겨우 백장을 발표한 상태이다. 그리고
「백년싸움」은 일종의 역사교양서로서
제국주의 외세의 침탈에 맞서 민족의 자존과
주체를 세우려는 민중들의 피어린
항쟁기록인 우리나라 현대사 백년을 정리해
보려는 것이다.

올해에 쓸 4권의 책들은 그러나 내년부터
쓰고자 하는 3권의 장편소설을 위한
준비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지리산
여장군」과 「松花江」과 「辛屯」이 그것이다.
「지리산 여장군」은 일제와 8·15와 6·25를
거쳐 1964년 말까지 이어지는 농민생활사
또는 농민운동사가 될 것이고, 「松花江」은
감오농민전쟁이 좌절하는 ‘우금개싸움’이
끝나는 자리에서 시작하여 계룡산과
태백산맥과 두만강을 거쳐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만주와 시베리아별관의
항일무장투쟁사가 될 것이며, 「辛屯」은
신돈이라는 한 결출한 민족주의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우리 민족사 최후의
고구려 고토수복 의지를 그리게 될 것이다.
3부작과 10부작과 5부작 정도의 규모이다.

- ④⑥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 「법철학」 「역사철학」
- ④⑦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파우스트」
- ④⑧ 허만 멜빌(Herman Melville 1819-1882) 「모버 디크」
- ④⑨ 찰스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 「자연도태에 의한 종의 기원」 「인간의 계보」
- ⑤⑩ 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 「자본론」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1820-1895) 「공산당선언」
- ⑤⑪ 톨스토이(Count Leo Tolstoy 1828-1910) 「전쟁과 평화」
- ⑤⑫ 도스토예프스키(Fyodor Mikhailovich Dostoevsky 1821-1881) 「카라마조프 형제」
- ⑤⑬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 「심리학 원리」
- ⑤⑭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 「꿈의 해석」 「정신분석개론」 「쾌락의 원칙을 넘어서」 등 18작품.
- ④⑩ 헨리 필딩(Henry Fielding 1707-1754) 「톰 존스의 생애」
- ④⑪ 몽테스큐(Baron de Montesquieu 1689-1755) 「법의정신」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 「불평등 기원론」 「경제학서설」 「사회계약론」
- ④⑫ 아담 스미드(Adam Smith 1723-1790) 「국부론」
- ④⑬ 에드워드 기본(Edward Gibbon 1737-1794) 「로마제국흥망사」
- ④⑭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순수이성비판」 「도덕형이상학 원론」 「판단력 비판」 등 7작품
- ④⑮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자유론」 「대의 정치론」 「공리주의」
알렉산더 해밀튼, 제임스 매디슨, 잔제이(Alexander Hamilton 1757-1804, James Madison 1751-1836, Jhon Jay 1745-1829) 「연방주의자」
- 미국의 중요한 공문서(American State Papers) 「독립선언서」 「연방규약」 「미국헌법」
- ④⑯ 제임스 보즈웰(James Boswell 1740-1795) 「세뮤얼 존슨의 생애」
- ④⑰ 라브와제(antoine Laurent Lavoisier 1743-1794) 「화학원리」
푸리에(Jean Baptiste Joseph Fourier 1768-1830) 「열의 분석론(서설)」
패러데이(Michael Faraday 1791-1867) 「전기에 대한 실험적 연구」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10개월20호분·값1만원
전화문의: 732-1431~3